

대학생 흡연자의 각성 수준과 상황에 따른 흡연 욕구 및 심리적 특성 연구

이 기 학 · 한 종 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흡연자들의 흡연 상황에 따른 흡연 욕구를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녀 차이, 성격 차원(강인성, 내향성, 외향성, 정서성), 흡연 유형(정기적인 흡연자 집단 대 비정기적인 흡연자 집단)에 따른 흡연 욕구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흡연 상황은 낮은 각성 수준 상황(지루함, 긴장 이완, 반복적인 작업 상황 등)과 높은 각성 수준 상황(정서적 스트레스, 불안 등)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흡연 상황에 따른 흡연 욕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더욱 흡연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다. 즉, 흡연자들은 지루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더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인다. 이전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대학생 흡연자들도 높은 각성 상황에 놓여 있을 때보다 낮은 각성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더 높은 흡연 욕구를 보였다. 하지만 이전 연구에서는 흡연자들의 성과 성격 차원에 따라 각각의 흡연 상황에서 흡연 욕구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남녀 차이, 성격 차이, 흡연 유형에 상관없이 낮은 각성 상황에서 일관되게 높은 흡연 욕구를 보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대학생 흡연자들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보다 지루하고 자극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욱 높은 흡연 욕구를 갖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흡연을 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기 위한 자극 추구의 동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전세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것 중의 하나가 흡연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와서 흡연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흡연은 상당히 폭넓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습관이다(Tollison, 1986). 1992년도에 발표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흡연자 중 2,30대가 전체 흡연 인구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흡연자들의 남녀 비율을 보면 전체 흡연자 중 남성이

92.1%, 여성이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였다(한국산업경제연구소, 1992). 또 흡연자들 대부분에게 있어 흡연 행동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흡연 연구는 흡연자의 흡연 행동 양상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만으로는 “개인이 왜 흡연을 하는가?” 즉, 흡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실제로 일상 생활 속에서 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흡연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기가 부족하다. 또한 실제로 어떤 상황에

서 흡연을 하는가 이외에 구체적으로 흡연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는가 하는 흡연 기대감을 알아보기에는 흡연자들의 흡연 행동 양상 연구만으로는 위의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흡연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흡연 유형 분석 외에 흡연자들의 개인적 특성(성별, 성격 등)과 흡연 욕구와 실제 흡연 상황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 관계 규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흡연자들의 흡연 욕구 및 흡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대학생 흡연자들의 흡연 행동을 알아봄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흡연을 하게 되며, 이러한 흡연 행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흡연에 대한 기대감 및 신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흡연 욕구와 흡연 동기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흡연 특징을 분석하고 더불어 흡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개인의 흡연 행동을 예언할 수 있는 변인을 찾고자 하는데 연구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흡연 행동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

개인이 흡연을 하는 관련 변인으로는 개인적 요소, 심리적 요소, 환경적 혹은 사회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심리-사회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성인에 대한 모방, 또래 집단과의 관계 등과 같은 발달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요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뿐만 아니라, 흡연을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이완감, 긴장의 감소, 인지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각과 흡연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관적 지각 및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Chassin, Presson, Sherman,

및 Edwards(1992)는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는 이유를 성인의 역할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일시 개념'으로서의 '가상적 성숙(pseudomaturity)'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성인의 상징 중의 하나인 흡연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개인 스스로 청소년의 신분에서 성인의 신분으로 옮겨가는 성숙의 감정을 느끼고자 한다는 것이다.

최초로 흡연을 시작한 이후 또래들의 관심 등과 같은 사회적 강화, 심리적 독립, 그리고 성적 매력 등과 같은 대인 관계적 요소를 통해 실험적인 흡연을 하게 되며, 지속적인 흡연을 함으로써 흡연이 하나의 습관 행동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습관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내/외적 압력이 생길 경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흡연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적인 성역할 사회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이 흡연을 함으로써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려는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Chassin, Presson, Sherman, & Edwards, 1992).

성별 및 연령 요인. 성별 및 연령에 따라서 흡연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흡연 인구 중 남성이 92.1%, 여성이 7.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남성 흡연 인구 중 하루에 반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평균 및 다량 흡연자가 83.7%를 차지하는 반면에, 전체 여성 흡연 인구 중 평균 및 다량흡연자의 비율은 57.9%를 보이고 있다(한국산업경제연구소, 1992). 또한 연령에 따른 흡연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Jessor, Donovan, & Costa, 1991), 2,30대에 가장 흡연 비율이 높고(전체 흡연 인구 중 69.5%)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체 흡연 인구 중 차지하는 흡연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40대:17.8%, 50대:9.0%, 60대:2.0%)을 보이고 있다(한국산업경제연구소, 1992).

남성은 여성보다 지루한 상황에서 더욱 흡연을 하고 싶어하는 반면에, 여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더욱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갖는다(Todd, 1969). 또한 Eysenck의 병적 소질-스트레스 모

형(1981)에 의하면, 남성들은 더 외향적인 성향이 많으며 여성들은 내향적인 경향을 보인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남성의 경우에 자극 추구 동기에 의해 흡연을 함으로써 지루한 상황(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더욱 흡연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인다. 성별에 따른 흡연 상황의 차이는 흡연의 유형을 '초조한 상황에서의 흡연(nervous irritation smoking)'과 '긴장 이완 흡연(relaxation smoking)'으로 구분한 McKennell(1968)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황적 요인(생리/약물학적 요인). 생리/약물학적 요인이 흡연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Frith, 1971; Tollins, 1986).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는 주요한 요소로 니코틴이 발생시키는 생리/약물학적 효과를 강조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Lucchesi, Schuster, & Empley, 1967). 일반적으로 니코틴은 유기체의 각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각성제(stimulant)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Armitage, Hall & Sellers, 1969). 니코틴이 각성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신체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더 흡연을 선호하게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흡연자들은 지루하거나 피곤한 상황(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더욱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며 실제 흡연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Frith, 1971).

따라서 흡연 상황을 낮은 각성 수준 상황과 높은 각성 수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두 상황 각각에서 흡연을 하는 흡연자들의 흡연 동기 및 기대감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니코틴이 각성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보다는 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더욱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된다. 하지만 각성 수준에 상관없이 하루에 반갑 이상의 흡연을 하는 평균 및 다량 흡연자(일일 흡연량이 많을수록)들이 하루에 반갑 이하의 흡연을 하는 소량 흡연자들보다 두 상황 모두에서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인다(Frith, 1971).

성격 요인. 흡연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한 Eysenck(1965, 1973, 1980)의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소인, 성격 및 상황적 요소가 흡연 습관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개인마다 서로 다른 성격이 개인의 흡연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요인 및 강화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여 흡연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외향적인 사람은 자극이 부족한 상황(낮은 각성 수준)에서 자신의 각성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더욱 흡연을 하고 싶어하는 반면에(Jamison, 1979), 신경증적인 사람은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이 매우 신경이 날카롭다고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높은 각성 수준)에서 더욱 흡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Spielberger & Jacobs, 1982).

이상과 같이 니코틴은 각성 수준을 감소시키거나 향상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Armitage, Hall, & Sellers, 1969), 이와 같은 전제에 의해 신체적으로 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 있는 사람은 자신들의 각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흡연을 하게 되며, 높은 각성 수준 상황에 있는 사람은 자신들의 각성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 흡연을 하게 된다.

흡연 의도와 흡연 행동에 관한 이론

Ajzen과 Fishbein의 이론. Ajzen과 Fishbein(1980)은 개인이 담배를 피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흡연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들고 있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개인이 갖고 있는 흡연에 대한 태도와 자신이 속에 있는 환경 내에서의 중요한 사람이 실제로 흡연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개인적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담배가 생각보다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거나 혹은 담배를 피우면 두뇌 회전이 잘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가 또는 담배를 피우면 더욱 세련되어 보일 것이라는 등과 같은 흡연에 대해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이다. 또는 자기 주위 사람들 중에 부모, 교사, 의미있는 타인 등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로써,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정적인 효과를 가

지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의해 흡연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Ajzen과 Fishbein에 의하면 개인의 흡연 여부는 이와 같은 태도와 신념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Jessor와 Jessor의 이론. 개인의 흡연 여부를 문제-해결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청소년의 흡연을 자신의 연령 집단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인의 행동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조숙(prematurity) 행동으로 보고 있다(Jessor & Jessor, 1977). Jessor와 Jessor는 개인의 흡연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크게 개인적 변인--학업 성취, 독립심 및 이탈에 대한 인내--과 지각된 환경--부모와 동료들로부터의 지지--을 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Jessor와 Jessor는 주어진 동일한 환경에 대해 개인이 어떤 식으로 지각하는가의 여부가 흡연 의도 및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심리적 자유 및 강한 통제감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더 높은 흡연 욕구를 보여주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인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실제 흡연 행동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나 흡연을 하고 있는가 하는 흡연자의 수에 의존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흡연자의 수라는 것은 통계적 의미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흡연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더불어서 자신이 속한 환경 내의 흡연자들의 흡연 습관이 개인의 흡연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Chassin, Presson, Bensenberg, Corty, Olshavsky, & Sherman, 1981).

흡연 행동 발달 이론

개인이 흡연 행동을 형성하는 과정을 발달 이론적 입장에서 본 Leventhal과 Cleary (1980)의 관점에 의하면, 성인의 흡연을 모방하거나 광고 등으로부터 받은 인상에 의해 흡연에 대한 개인적 태도와 지식을 획득하는 준비 단계(preparation), 흡연 여부를 또래 혹은 가족 등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앞

으로의 지속적인 흡연 여부를 결정하고 흡연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형성하는 실험적 흡연 단계인 시작 단계(initiation), 흡연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흡연을 하는 상황 또는 장면이 이전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해지는 정기적인 흡연가 단계(regular smoker),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심리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유지 단계(maintenance) 등 4단계의 흡연 행동 형성 과정을 거쳐 흡연 행동이 흡연 습관으로 변화·발전하게 된다.

앞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흡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개인의 흡연 욕구와 흡연 행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성별,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흡연 양상을 보여주며, 더불어 성격 요인 그리고 심리-사회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고 할 수 있다.

흡연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상을 획일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여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흡연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의 여부가 흡연 행동을 보이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한정하더라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다양하며 실제 흡연 행동에 대해 더 허용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흡연 욕구를 보이더라도 서로 다른 흡연 행동 결과를 보이게 된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더 흡연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흡연 상황을 낮은 각성 수준 상황과 높은 각성 수준 상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갖게 되는 흡연에 대한 욕구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흡연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밝혀 내고 개인이 흡연 행동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흡연의 잠재적 기능에 대한 지각은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예를 들어, 흡연자들은 흡연을 통해 불안감을 감소시키거나 각성 수준의 향상 등과 같은 주관적 지각 및 기대감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차적인 만족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흡연을 통한 일차적인 만족 다음에 올 수 있는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등과 같은 과제 수행에서의 향상 등을 가져온다고 개인이 지각하게 되는 이차적인 만족을 더불어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이 느끼는 지각된 만족은 사회적 이미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흡연 행동이 흡연자들이 가지는 사회적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성 차이와 개인적 특성인 성격 요소가 흡연 상황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흡연 상황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을 밝혀내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개인의 흡연 욕구는 흡연 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하루에 피우는 담배의 물리적인 양이 많을수록 흡연에 대한 욕구는 높아져서 정기적인 흡연자가 비정기적인 흡연자보다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높은 각성 수준 상황보다 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일 것이다. 담배에 내포되어 있는 각성제인 니코틴의 생리/약물학적 효과에 의해 신체적으로 이완되어 있는 단순하고 권태로운 상황에서 더욱 흡연의 욕구를 갖게 될 것이다.

가설 3. 흡연 상황에서의 흡연 욕구는 남녀 차이를 보일 것이다.

3-1. 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더욱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일 것이며, 여성은 높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일 것이다.

3-2. 개인의 흡연 욕구에 성과 흡연 상황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개인의 흡연에 대한 욕구는 성격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4-1.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의 흡연 상황 욕구가 다를 것이다.

4-2. 성격 차원과 흡연 상황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외향적이면서 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내성적이면서 높은 각성 수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조사대상

서울 및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2년제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남녀 대학생 726명(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 349명, 지방 소재 대학교 학생 377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흡연 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 344명(남학생 282명, 여학생 62명)을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조사대상 흡연자들의 소재지 및 남녀에 따른 응답자 현황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남자대학생	여자대학생
서울	178(51.7)	147(42.8)	31(9.0)
지방	166(48.3)	135(39.2)	31(9.0)
총계	344(100.0)	282(82.0)	62(18.0)

주. ()는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율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개인의 성별, 성장 지역, 학업 수준, 종교 유무,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의 학업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측정하는 문항, 2) 개인의 흡연 상황을 측정하는 문항, 3) 개인의 성격 유형을 측정하는 문항 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우리나라 대학생 흡연자들이 실제 어떤 상황에서 흡연 욕구를 강하게 느끼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흡연 상황 질문지를 예비 조사를 통해 수정 제작하였으며, 성격 차원 검사는 기존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위의 3가지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흡연 상황의 측정 도구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흡연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끼며 일상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흡연을 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Frith(1971)가 개발한 흡연 상황 질문지(Situational Smoking Questionnaire)를 본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표 2. 흡연 상황 질문지의 요인 구성 및 신뢰도 계수

상 황	문항 번호	요인 부하량	내적 일관성 신뢰도
낮은	11	.85151	
각성 상황	3	.83078	
긴장 이완	6	.80530	
지 루 함	13	.75483	
단순/반복적	14	.73447	
작업 상황	5	.66797	
	17	.60715	
	8	.54385	.83
높은	2	.70144	
각성 상황	10	.66081	
정서적	12	.65922	
스트레스	7	.65085	
불 안	16	.63535	
지적 활동/ 호기심	9	.60080	
	4	.59959	
	1	.54462	
	15	.51448	.90

Frith가 개발한 흡연 상황 질문지(Situational Smoking Questionnaire)는 높은 각성 수준 상황을 나타내는 2개 요인에 대한 12문항과 낮은 각성 수준 상황을 나타내는 2개 요인에 대한 10문항 등 총 4개 요인의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4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이 4개 요인 가운데 정서적 스

트레스와 불안 요인(6문항), 그리고 지적 활동에 의한 스트레스 요인(6문항)은 높은 각성 수준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며, 긴장 이완과 지루함 요인(6문항) 그리고 단순반복한 작업 상황 요인(4문항)은 낮은 각성 수준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179명(남자 대학생 100명, 여자 대학생 79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Frith의 흡연 상황 질문지에 있는 전체 22문항에 대해 주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이 .5미만이며 요인 구분이 적절하지 못한 문항(요인 부하량이 .5 이상인 경우에도 요인간의 요인 부하량이 .2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여-정서적 스트레스와 불안 요인 2문항, 지적 활동에 의한 스트레스 요인 1문항, 긴장 이완과 지루함 요인 2문항 등 총 5문항 제외-, 최종적으로 2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2:모르겠다, 3:약간 피우고 싶다, 7:매우 피우고 싶다)의 17문항으로 제작하였다(부록 1 참조).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흡연 상황 질문지의 문항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적/정서적으로 많은 자극을 받는 상태의 높은 각성 수준 상황-정서적 스트레스, 불안, 인지적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을 나타내는 9문항(1, 2, 4, 7, 9, 10, 12, 15, 16)과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이 거의 없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의 낮은 각성 수준 상황-긴장 이완, 지루함, 피곤함, 반복적인 작업 상황-을 나타내는 8문항(3, 5, 6, 8, 11, 13, 14, 17) 등 2요인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0이며 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3이다.

성격 유형의 측정 도구

조사 대상자의 성격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검사는 아이젠크 성격 차원 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로서 Eysenck와 Eysenck가 제작한 것을 이현수(1985)가 한국어로 표준화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강인성, 외향성-내향성, 정서

성, 허위성과 같은 중요 성격 차원적 요인의 특성을 측정하는 질문지 형식으로 된 성격 검사로서 총 7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현수(1985)에 의하면, 강인성 차원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공격적, 정서적으로 냉담하여 동정심이 없다. 또한 독창적 능력이 풍부하며 충동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한편, 외향성 차원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사교적이며 많은 친구를 사귈다. 그리고 활동적이며 생기가 넘칠 뿐만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정서성 차원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정서적 반응이 예민하며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조그만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마지막으로 내향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항상 조용하며 사색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4개 차원의 남녀에 따른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용 검사의 경우에는 강인성 척도는 남자 .66, 여자 .55, 외-내향성 척도는 남자가 .80, 여자가 .78, 정서성 척도는 남자 .78, 여자 .74이며 허위성 척도는 남자 .82, 여자 .81이다. 한편, 아동용 검사에서는 강인성 척도에서 남자 .65, 여자 .67, 외-내향성 척도는 남자 .77, 여자 .79, 정서성 척도는 남자 .74, 여자 .77이며 허위성 척도는 남자 .76, 여자 .72이다(이현수, 1985). 본 검사에서는 아동용 검사(총 70문항)와 성인용 검사(총 79문항)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결 과

흡연 상황에 따른 흡연 욕구

개인이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흡연 상황을 나타내는 17문항 각각에 대한 응답자의 흡연 욕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낮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에 있을 때가 높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에 처해 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에 대한 욕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 문항(6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낮은 각성 수준

상황을 나타내는 문항이 흡연 욕구를 나타내는 정도가 7점 척도에서 3.0 이상의 평균 점수 점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인 남녀 대학생 흡연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보다는 지루하거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 상황 등 다소 권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흡연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흡연 상황에 따른 개인의 흡연 욕구의 평균 및 표준편차(사례수: 344명)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각성수준
5	4.44	2.12	낮음
13	4.26	2.21	낮음
15	4.10	2.28	높음
8	4.05	2.30	낮음
14	3.83	2.20	낮음
17	3.81	2.36	낮음
11	3.66	1.88	낮음
1	3.65	2.30	높음
2	3.45	2.18	높음
3	3.38	1.91	낮음
10	3.26	2.11	높음
6	2.90	1.84	낮음
4	2.55	2.00	높음
7	2.53	2.00	높음
9	2.34	1.66	높음
16	1.99	1.61	높음
12	1.70	1.33	높음

흡연 유형과 흡연 상황에 따른 흡연 욕구

하루에 개인이 피우는 평균 흡연량의 정도에 따라 흡연 욕구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정기적인 흡연자 집단'(183명:남자 대학생 179명, 여자 대학생 4명)과 '비정기적인 흡연자 집단'(161명:남자 대학생, 103명, 여자 대학생 58명)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흡연 욕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흡연 유형은 1992년 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 흡연자들의 흡연 정도를 분석한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과거에 흡연 경험이 있었던 흡연 경험자와 하루에 몇 차례 이하의 흡연을 하는 소량 흡연자를 '비정기적인 흡연자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하루에 반갑에서 한갑 이하의 담배를 피우는 평균 흡연자와 하루에 한갑 이상의 흡연을 하는 다량 흡연자를 '정기적인 흡연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흡연자 집단에 따른 낮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과 높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에서의 흡연 욕구에 대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흡연자 집단에 따른 흡연 욕구의 평균 점수

흡연 상황	계	비정기적인 흡연자	정기적인 흡연자	t점수
낮은 각성상황	3.79(1.46)	2.97(1.39)	4.52(1.10)	11.31***
높은 각성상황	2.85(1.19)	2.28(1.09)	3.35(1.04)	9.36***

주. ()는 표준편차

*** $p < .001$

낮은 각성 수준 상황(정기적인 흡연자 집단: 평균 4.52, 표준편차 1.10; 비정기적인 흡연자 집단: 평균 2.97, 표준편차 1.39, $t(344)=11.31, p < .001$)과 높은 각성 수준 상황(정기적인 흡연자 집단: 평균 3.35, 표준편차 1.04; 비정기적인 흡연자 집단: 평균 2.28, 표준편차 1.09, $t(344)=9.36, p < .001$) 모두에서 '정기적인 흡연자 집단'이 '비정기적인 흡연자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하루에 피우는 흡연량이 많을수록 각성 수준에 상관없이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이고 있으며 각성 상황과 흡연량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표 5 참조).

표 5. 각성 상황과 흡연량과의 상관 관계

구 분	낮은 각성상황	높은 각성상황
높은 각성 상황	.51***	
흡 연 량	.61***	.41***

*** $p < .001$

성별과 흡연 상황에 따른 흡연 욕구

표 6에 의하면, 낮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평균 3.79, 표준편차 1.46)에서의 흡연 욕구가 높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평균 2.85, 표준편차 1.19)에서의 흡연 욕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t(344)=13.24, p < .001$). 또한 이와 같은 결과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에도 남녀 모두 높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보다 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이고 있다.

표 6. 남녀에 따른 흡연 상황에서의 흡연 욕구의 평균 점수

흡연 상황	계	남 자	여 자	t점수
낮은 각성상황	3.79(1.46)	3.97(1.42)	2.98(1.39)	5.01***
높은 각성상황	2.85(1.19)	2.98(1.17)	2.23(1.08)	4.63***
t점수	13.24***	12.73***	4.19***	

주. ()는 표준편차

*** $p < .001$

한편, 각각의 상황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면, 두 상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남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낮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에서는 남자 대학생 흡연자 집단(평균 3.97, 표준편차 1.42)이 여자 대학생 흡연자 집단(평균 2.98, 표준편차 1.3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이고 있으며($t(344)=5.01, p < .001$), 또한 높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에서도 남자 대학생 흡연자 집단(평균 2.98, 표준편차 1.17)이 여자 대학생 흡연자 집단(평균 2.23 표준편차 1.0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이고 있다($t(343)=4.63, p < .001$).

위의 결과에 대해 성과 각성 수준 상황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효과 여부를 검증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 의하면, 흡연자의 성이 남성 혹은 여성의 여부와 흡연 상황이 높은 각성 수준 상황인가 혹은 낮은 각성 수준 상황인가하는 성과 각성 수준 상황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대학생 흡연자의 흡연 욕구의 정도에서는 아무런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성과 각성 수준 상황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흡연 욕구

	SS	df	MS	F
성별	77.20	1	77.20	31.55***
각성 수준상황	77.16	1	77.16	87.49***
성×각성 수준상황	1.51	1	1.51	.19

성격 차원과 흡연 상황에 따른 흡연 욕구

개인의 성격 차원이 흡연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격 차원을 강인성, 내향성, 외향성, 정서성의 4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의 성격 차원 집단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강인성 성격 차원, 정서성 성격 차원, 외향성 성격 차원을 보이는 사람은 다른 3가지 차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이현수(1985)의 아이젠크 성격 차원 점사의 기준에 따라 표준 점수가 65점 이상인 사람으로, 내향성 성격 차원을 보이는 사람은 다른 3가지 차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표준 점수가 35점 이하인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표 8. 성격 차원에 따른 흡연 상황에서의 흡연 욕구 평균 점수

성격 차원	사례수	낮은 각성상황	높은 각성상황	t점수
강인성	38	3.96(1.32)	3.03(1.28)	3.98***
외향성	51	4.00(1.30)	2.82(.96)	6.90***
정서성	48	3.71(1.49)	2.92(1.19)	3.92***
내향성	30	3.90(1.67)	3.05(1.36)	3.33**

주. ()는 표준편차 ** p<.01, *** p<.001

표 8의 결과를 보면, 낮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에서의 흡연 욕구는 외향적인 사람(평균 4.00 표준편차 1.30)이 가장 높고, 높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에서는 내향적인 사람(평균 3.05 표준편차 1.36)이 가장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이고 있지만,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한편, 각각의 성격 차원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강인성(낮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 평균 3.96, 표준편차

1.32 대 높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 평균 3.03, 표준편차 1.28, $t(38)=3.98, p<.001$), 내향성(낮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 평균 3.90, 표준편차 1.67 대 높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 평균 3.05, 표준편차 1.36, $t(30)=3.33, p<.01$), 외향성(낮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 평균 4.00, 표준편차 1.30 대 높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 평균 2.82, 표준편차 .96, $t(51)=6.90, p<.001$), 정서성(낮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 평균 3.71, 표준편차 1.49 대 높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 평균 2.92, 표준편차 1.19, $t(48)=3.92, p<.001$) 4차원 모두에서 낮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에서의 흡연 욕구가 높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에서의 흡연 욕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흡연 상황과 성격 차원과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개인의 흡연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 흡연 욕구에 미치는 흡연 상황과 성격 차원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성격 차원과 흡연 상황과의 상호작용 효과

	SS	df	MS	F
성격 차원	1.43	3	.48	.19
흡연 상황	67.30	1	67.30	76.98***
성격차원×흡연상황	2.06	3	.69	.78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왜 흡연을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낮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과 높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으로 구분한 Friid(1971)의 흡연 상황 이론에 근거하여,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흡연을 하고자 하는 욕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흡연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짜증스러운 상황 등 신체적으로 높은 각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보다는 지루하거나 피곤하고 반복적인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매우 권태로운 상황

등 신체적으로 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더욱 흡연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이며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더욱 흡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이 흡연을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함과 같이 각성되었을 경우보다는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는 일을 수행하고 있을 때 더욱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분을 가라앉히거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흡연을 통해 지루한 상황을 없애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싶을 때 더욱 담배를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체적인 각성 수준 상황에 상관없이 두 조건 모두에서 흡연량과 흡연 욕구는 정적 관계를 보이는데(Frith, 1971), 담배를 하루에 반 갑 이상 피우는 '정기적인 흡연자 집단'과 하루에 몇 개비 이하의 담배를 피우는 '비정기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정기적인 흡연자 집단'이 '비정기적인 흡연자 집단'에 비해 낮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과 높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 모두에서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인다. 이는 흡연량과 흡연 욕구와의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량이 많을수록 특별히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상황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고 높은 흡연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흡연 욕구의 남녀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Eysenck, 1980; Frith, 1971; Steel, Abeles, & Card, 1982)에 의하면, 남성은 신체적인 각성 수준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 지루한 상황과 같은 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더욱 강한 흡연 욕구를 느끼는 반면에, 여성은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등과 같은 높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 욕구를 느낀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더욱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일관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녀 모두 흡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감이 자극이 없이 단순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한가함이나 권태로움을 잊기

위해 흡연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흡연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자극이 부족하여 매우 권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와 같은 권태로움을 잊기 위해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하는 자극 추구 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격 차원에 따른 흡연 상황에서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Eysenck, 1980; Tollison, 1986)에 의하면, 외향적인 사람은 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은 높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더욱 강한 흡연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강인성, 내향성, 외향성, 정서성 등 모든 성격 차원에서 낮은 각성 수준 상황이 높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보다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는 강인성, 내향성, 외향성, 정서성의 4가지 성격 차원 중에서 외향적인 사람이 가장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이고, 높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는 내성적인 사람이 가장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이고 있지만 그 차이는 유의하지 못하다. 따라서 성격 차원에 따른 흡연 상황의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적인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성별 및 성격 차원의 개인적 특성과 흡연 상황에 따라서 흡연 욕구에서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 본 결과, 개인적 특성과 흡연 상황과의 상호 작용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모든 개인적 특성에 상관없이 흡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가 개인의 흡연 욕구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성차이와 성격에 따라서 흡연 상황이 달라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Eysenck, 1980; Frith, 1971; Steel, Abeles, & Card, 1982; Tollison, 1986)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남녀 차이, 성격 차원의 차이에 상관없이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상황은 모두 지루하거나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즉 신체적으로 각성 수준이 낮을 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는 상황 또는 흡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 대인관계

적 매력, 긴장, 불안 등과 같은 것보다는 지루하거나 자극이 부족한 신체적으로 각성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대학생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지적 활동을 하는 동안이나 혹은 정서적으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신체적으로 매우 이완되어 있는 상황 또는 특별한 인지적 능력이 필요 없이 단순히 주위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더욱 흡연 욕구를 느끼며 실제적인 흡연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어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흡연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흡연 욕구 및 흡연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 변인으로 자극 추구 동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사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남녀 비율의 불균형이다. 흡연자의 남녀 비율이 82%(282명) 대 18%(62명)로 남자 흡연자에게 편중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흡연자 유형을 하루에 반갑 이상을 피우는 정기적인 흡연자 집단과 하루에 몇 개비 이하의 담배를 피우는 비정기적인 흡연자 집단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정기적인 흡연자 집단의 경우에 하루에 피우는 담배의 양에 따른 흡연 유형을 좀더 세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낮은 각성 수준에서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이는 것에 대한 매개 변인이 설정되어 있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흡연 욕구와 개인의 자극 추구 동기와의 관계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이현수(1985). **성격차원검사**. 중앙적성출판사.
- 한국산업경제연구소(1992). **제조 담배 가격 책정과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담배인삼공사.
- Ajzen, I. & Fishbein, M. (1980). The prediction of behavior from attitudinal and normative variabl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 466-487.
- Armitage, A. K., Hall, G. H., & Sellers, C. M. (1969). Effects of nicotine on electrocortical activity and acetylcholine release from the cat cerebral cortex. *British Journal of Pharmacology*, 35, 152-160.
- Chassin, L., Presson, L. C., Bensenberg, M., Corty, E., Olshavsky, R., & Sherman, S. J. (1981). Prediction adolescent's intensions to smoke cigarettes. *Journal of Health Social Behavior*, 22(4), 445-455.
- Chassin, O., Presson, C. C., Sherman, S. J., & Edward, D. A. (1992). The natural history of cigarette smoking young adult social rol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328-347.
- Eysenck, H. J. (1965). *Smoking, health, and personality*. New York: Basic Books.
- Eysenck, H. J. (1973). Personality and the maintenance, of the smoking habit. In W. L. Dunn (Ed.), *Smoking behavior: Motives and incentives*. Washington, D. C. Winston/Wiley.
- Eysenck, H. J. (1980). *The causes and effects of smoking*. London: Temple Smith.
- Eysenck, H. J. (1981). *A model for personality*. New York: Springer.
- Frith, C. D. (1971). Smoking behavior and its relation to the smoker's immediate experien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73-78.
- Jamison, R. N. (1979). Cigarette smoking and personality i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Psychological Reports*, 44, 842.
- Jessor, R., Donovan, J. E., & Costa, F. M. (1991). *Beyond adolescence: Problem behavior and young adult development*.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ssor, R. & Jessor, S. I. (197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New York: Academic Press.
- Leventhal, H. & Cleary, P. D. (1980). The smoking problem: A review of the research and theory in behavior risk modification. *Psychological Bulletin*, 88(2), 370-405.
- Lucchesi, B. R., Schuster, C. R., & Empley, G. S. (1967). The role of nicotine as a determinant of cigarette smoking frequency in man with observations of certain cardiovascular effects associated with the tobacco alkaloid. *Clinical Pharmacology of Therapeut*, 8, 787- 796.
- McKennell, A. C. (1968). British research into smoking behavior. In E. F. Borgatta & R. R. Evans (Eds.), *Smoking health and behavior*. Chicago: Aldine.
- Spielberger, C. D. & Jacobs, G. A. (1982). Personality and smok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 396-403.
- Steel, L., Abeles, R. P., & Card, J. J. (1982). Sex differences in the patterning of adult roles as determinant of sex differences in occupational achievement. *Sex Roles*, 9, 1009-1024.
- Todd, G. F. (1969). *Statistics of smoking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Tobacco Research Council.
- Tollison, R. D. (1986). *Smoking and society: Toward a more balanced assessment*. D. C. Helath & Company/Lexington, Massachassuetts.

부 록 1. 흡연 상황 질문지(7점 척도)

1. 중요한 면접시험을 보고 있다.
 2. 복잡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친구들과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다.
 4. 교통이 복잡한 거리에서 빨리 차를 몰아야 한다.
 5. 집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출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6. 신문을 보면서 저녁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7. 어려운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8. 매우 피곤하지만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
 9.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휴강을 요구해야 한다.
 10. 한달 동안 쓴 돈과 은행의 통장 잔고가 맞지 않아 계산을 하고 있다.
 11. 휴식 시간에 친구와 잡담을 하고 있다.
 12. 지능검사에서 암산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
 13. 몇 시간 짜 기차 여행을 하고 있다.
 14. 한적한 시골길을 혼자 걷고 있다.
 15.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는데 친구가 그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16. 시끄러운 사무실에서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17. 과식을 하였다.
-

A Study on the Needs of Smoking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mokers at Various Level of Arousal

Ki-Hak Lee and Jong-Chul Han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reports the results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needs of smoking by college students in various smoking situations. Specifically, we measured the differences in the needs of smoking between sex, among personality dimensions (tough-mindedness, introversion,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smoking patterns (regular versus irregular smoker). Smoking situations were divided into low-arousal situations (boredom, relaxation, repetitive work, etc.) and high-arousal situations (emotional stress, anxiety, etc.). In general, studies concerned with smoking suggested that most of the smokers showed more desire for smoking when they were in low-arousal situations than when they were in high-arousal situations. That is, smokers showed more desire for smoking in boring situations or during break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eem to support previous studies. College student smokers tended to show more desire for smoking in low-arousal situations than in high-arousal situation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college smokers showed more desire for smoking in low-arousal situations regardless of their sex and personality dimensions, whereas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at the smoking desire was different according to subject's sex or personality dimensions in different smoking situations.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smoking is not for decreasing stress or anxiety, but for seeking new stimulus.